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A Christian Answer to the Suicide

제 해 종
삼육대학교 조교수

Haejong Je
Korean Sahmyook University

요약

오늘날 자살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살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성경의 자살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다룬 다음 자살의 원인을 살펴볼게 될 것이다. 자살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견해는 대략적으로 생물학적 원인, 정신과적 원인, 그리고 사회학적 원인 세 부류로 나뉜다. 논자의 주요 논지는 자살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경의 생명존중을 기초로 한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다. 둘째, 인간은 궁극적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의 미래를 조망해야 할 존재이다. 셋째, 자살은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I. 서론 - 자살의 현주소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자살이다. 자살은 더 이상 방조할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10대부터 시작하여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자살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자살은 가뜰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자살을 모든 고민과 문제들에 대한 탈출구로 착각케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14,160명이 자살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38.7명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10만 명당 28.1명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2.9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회적으로 생명존중 사상을 가르치는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살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생명의 경외성과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결과적으로 물질만능주의만이 만연하게 됨으로써 자살은 통제할 수 없을 수준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II. 본론 - 자살의 이해

1. 자살의 역사적 이해

자살의 영어단어 ‘suicide’는 라틴어 ‘sui’(자신)와 ‘cide’(절나나다)의 합성어로서 스스로를 죽이는 것을 뜻한다.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자살은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무서운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살에 대해서 관대하게 본 적도 있지만 대개가 자살에 대해 반대한 입장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자살을 종종 영웅적 행위로 칭송하는 경우가 있었다. 헤라클레스가 불로 자살함으로써 불사신들의 거처인 올림푸스에 오른 이야기, 피라모스를 잃고 절망한 티스베가 자살함으로써 더 멋진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 자살한 괴물이 스팅크스가 된 이야기 등 모두가 자살을 예찬한다. 하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대부분 자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플라톤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자살을 신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살을 불법적인 것이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1]. 건유학과나 스토아학과, 에피쿠로스학과 등이 자살에 대해 이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자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철학자들이 자살에 대해 견해가 갈린 것과 달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자살에 대해 거의 대부분이 자살을 반대하는 일치된 입장을 취하였다. 다른 유신론적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자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선물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간주했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뿌리는 아우구스티누스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자살을 ‘살인하지 말지 나라’는 계명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보았다. 즉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살을 살인과 동일시했다는 것이다. 칼뱅 때 와서는 자살에 대해 더 부정적이 되어 용서받지 못할 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자살에 대한 이해는 급기야 기독교 내에서 자살은 곧 지옥행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내게

했다. 하지만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자살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기보다는 치유가 필요한 질병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만연하는 자살은 더더욱 그렇다.

2. 자살의 원인

자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모네스티에는 자살의 동기로 989가지를 꼽고, 자살 방법도 83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자살의 동기와 원인을 제시한다.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했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자살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마르탱 모네스티에는 자살의 원인을 연애, 부끄러움, 명예, 자아희생, 명령, 믿음, 정치적 위기, 빈곤, 부당한 처우, 정신질환, 미신, 신의 심판 등 12가지로 분류하는가 하면, 레드필드 재미슨이나 토머스 조이너는 정신병리학적 및 유전학적으로 자살을 설명했다³⁾. 그 외에도 존 볼비, 에드윈 슈나이더먼, 모리스 파버 등은 자살의 이유를 심리적 원인에서 찾았다. 이들 학자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자살의 원인들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세 가지 생물학적, 정신과적, 사회학적 원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살은 홀몬의 작용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인간의 신체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경전달물질들은 인체활동뿐만 아니라 감정활동에도 깊이 관여한다. 인체의 정상적 활동과 감정 작용에 관여하는 홀몬들이 감소하게 될 때 우울증을 앓거나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생물학적 요인의 또 다른 증거는 쌍둥이 중 하나가 자살했을 경우 다른 하나의 자살 가능성이 이란성보다 일란성이 무려 15배나 높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 자살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자살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과적 장애의 결과로 보는 견해이다. 오늘날 상당수의 자살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한다. 즉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 자살을 결행할 당시 정신과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배 이상 자살률이 높다. 미국 경제대공황 때 미국에서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미국 역사 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였다는 사실도 정신과적 원인의 하나인 스트레스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임을 입증해준대⁴⁾.

셋째, 자살의 원인을 사회적 특성의 반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생물학적, 정신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했다⁵⁾. 그에 따르면 자살은 한 개인이 특정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는 일종의 사회현상이다. 위의 두 가지

요인을 포함한 많은 요인들을 열거하지만 이런 비사회적 요인들이 실제로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뒤르켐은 자살의 사회학적 원인들을 다시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로 세 가지로 구분했다. 가톨릭 신자보다 사회적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신교 신자들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이기적 자살의 한 예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때 이기적 유형의 자살이 발생한다. 이타적 자살은 주로 현대 사회보다는 전 근대적 사회에서 주로 발생하고, 종교적 신념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결행되는 자살이 그 예다. 끝으로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극단적 좌절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일종의 탈출구 같은 것이다.

넷째, 위의 세 가지 유형만으로는 자살의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과적 요인, 그리고 사회학적 요인이 분명 자살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지만 이들이 자살 문제를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한 개인의 자살은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결국 이런 여러 요인들에 대해 한 개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복합적 요인 속에 있다고 모두가 다 자살을 결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II. 결론

성경의 생명존중 사상에 기초하여 자살에 대한 세 가지 본질적인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 지음 받았으므로 생명은 고귀하다. 둘째,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존재로서 궁극적 희망의 미래를 조망할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자살은 곧 지옥행으로서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과 치유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바로잡는 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 [1] Aristotle, *Ethica Nicomachea: Nicomachean Ethics*, trans. W.D. Ross, New York: McGraw-Hill, 1947.
- [2] 모네스티에, 마르탱/이시진·한명희 공역. 『자살론』. 서울: 도서출판 새움, 2002.
- [3] 재미슨, 케이 레드필드/이문희 역. 『자살의 이해』. 서울: 뿌리와이파리, 1999.
- [4] 최병학, “자살 & 살자: 기독교 시각에서 본 자살과 생명 윤리.” 『윤리교육연구』 제31집 2013.
- [5] Durkheim, Emile. *Suicide: A Sociological Study*. Glencoe, IL: Free Press, 1975.